

신청사 건립 지방재정투자심사 의뢰

익산시, 심사 2개월 소요... 올해 말까지 행정절차 마무리

익산시가 신청사 건립에 대한 행정안정부의 타당성조사를 순조롭게 받으면서 사업추진의 속도를 높이고 있다. 익산시에 따르면 3월부터 진행된 행정안정부의 타당성조사가 지난 9일 최종보고회를 마치고 마무리단계에 들어섰으며 이를 바탕으로 전라북도에서 지방재정투자심사를 의뢰했다.

시는 오는 10월경에 지방재정투자심사가 이루어지면 익산시의회의 공유

재산관리계획 승인 등 행정절차를 연내에 마무리하고 이후 설계공모 등을 거쳐 2021년에는 청사 건립에 착수할 예정이다.

'지방재정투자심사'는 지방재정법에 따라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인 지방자치단체의 신규사업에 대해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정한 전문기관에서 타당성조사를 받고 그 결과를 토대로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심사하

는 행정 절차로 지방자치단체 청사의 경우 상급기관(전라북도)에서 심사하며 약 2개월이 소요된다.

청사는 본청과 의회, 주민편의시설 등이 포함된 연면적 3만9271㎡, 지하 1층 ~ 10층 규모로 계획됐으며 청사 전면엔 열린시민광장을 조성하고 내부에는 다목적홀, 시민회의실, 도서관 등 다양한 시민편의시설이 반영돼 있다.

또한 주차장은 청사부지 내 지하주차장을 포함한 504대와 2층 주차장 부지에 280여대 규모의 주차발당을 건립해 약 800여대를 확보하는 등 청사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주차편의를 도모할 예정이다.

정현을 익산시장은 "청사건립을 위한 행정절차가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있다"며 "나머지 행정절차도 빠른 시일 안에 이행하여 하루빨리 새롭고 안전한 청사를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군산시, 구 시청광장

도시재생 분수대 설치 완료

문화가 흐르는 관광도시 군산시가 구 시청광장에 도시재생 분수대를 설치완료하고 시범 가동에 들어갔다.

시에 따르면 군산문화재야행이 치러지는 시기 맞춰 운영을 시작해 무더위에 지친 관광객과 시민들에게 청량감을 선사하며 큰 호응을 얻고 있으며 오는 31일까지 시범운영을 거친 뒤 동절기를 제외한 기간동안 연중 운영한다고 밝혔다.

분수대는 2년 분수 위에 어청도 등 대를 형상화한 조형물을 얹은 형태로 분수대 및 주변 바다에는 경관조명을 설치했고 하늘로 솟는 물줄기가 낮 시간 무더위에 지친 시민과 관광객에게 시원함을, 저녁 시간에는 조명에서 뿜어 나오는 빛이 주변 경관과 어울려 멋진 분위기를 제공한다.

지난 2018년 준공된 '구 시청광장'은 현재는 음악인의 자유 공연장으로, 연극인의 연극 무대로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으며 지난 4월부터 정기적으로 공예품과 종교물품의 플라마켓 장터로도 활용되고 있다.

도시재생 선도사업의 대표성과물인 '구 시청광장'에 구도심을 밝히는 빛을 상징하는 어청도 등대 형상의 분수대까지 설치되면서 '구 시청광장'은 앞으로 시민과 관광객의 쉼터로, 만남의 광장으로 구심점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주병선 도시재생과장은 "유럽 여행을 하다보면 가장 자주 마주하게 되는 것이 골목과 골목, 그 골목의 끝자락에 있는 골목과 분수대로 '광장'과 '분수대'는 만남의 공간이자 '쉼'의 공간이 된다. 도시재생 선도사업의 대표 성과인 '구 시청광장'과 새로 설치된 '분수대'가 시너지로 작용하여 군산의 새로운 관광 명소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전했다.

/군산=김정훈 기자

제74주년 광복절 경축 행사 개최

강임준 군산시장 "지혜와 역량을 결집하고 화합할 것" 당부

일제강점기 수탈의 아픈 역사를 고스란히 간직한 군산시는 제74주년 광복절을 맞아 경축식을 개최했다.

지난 15일 군산시청 대강당에서 개최된 경축식은 광복회 전라북도 지부 군산지회 주관으로 강임준 군산시장을 비롯해 독립유공자 유족, 광복회원, 보훈단체장, 학생, 시민 등 500여명이 참석해 광복의 기쁨을 함께 나눴다.

경축식에 앞서 전주교대 부설초등학교 '푸른소리중창단'의 식전공연이 있었으며 일제강점기 군산역

사 영상 시청을 통해 역사를 기억하고 우리의 현재를 다시 한 번 되돌아볼 수 있는 특별한 시간을 마련했다.

이어진 경축식은 국민의례, 전년 권 광복회장의 기념사와 강임준 군산시장의 경축사, 광복절 노래제창, 만세삼창 순으로 진행됐다.

전년 권 광복회 전라북도지부 군산지회장은 기념사에서 "오늘의 대한민국은 우리 선열들의 목숨을 건 파리는 투쟁으로 이뤄진 것임을 결코 잊어서는 안될 것"이라며 "큰 어려움과 마주하고 있는 지금 우리

선조들의 항일역사를 자긍심을 가지고 전 시민이 결집하여 슬기롭게 위기극복의 돌파구를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경축사를 통해 광복을 위해 몸 바치신 애국선열과 독립유공자 유가족께 경의를 표하고 "100년전 군산3.5만세운동으로 항거한 선열들이 반드시 광복이 올 것이라는 희망 속에서 서로를 격려하며 고난을 이겨냈다"며 "시민들도 지금의 어려움을 반드시 극복할 수 있다는 낙관의 힘으로 지혜와 역량을 결집하고 서로를 격려하며 화합할 것"을 당부했다.

/군산=김정훈 기자

익산시, 숨리문화예술회관에서 광복절 경축식 거행

익산시가 15일 독립운동에 몸을 바친 순국선열들을 기리고 송고한 나라사랑의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제74주년 광복절 경축식을 거행했다.

이날 숨리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경축식에는 광복회와 보훈단체 회원, 기관단체장, 각계각층의 시민, 학생 등 약 500여 명이 참석했다. 경축식은 애국가 제창, 기념사·경축사 낭독, 시립합창단의 경축공연, 광복절노래 제창, 만세 삼창 순

으로 진행됐다.

특히 양병관 광복회장을 대신해 기념사를 낭독한 이해석 광복회원은 "74년 전 광복은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다"라며 일본의 경제 보복에 대한 규탄과 과거사에 대한 진심 어린 사과를 촉구했다.

/익산=장영원 기자

익산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추가 지원...19일부터 접수

익산시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56억6천여만원을 추가 확보해 오는 19일부터 접수한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시는 상반기에 486대 6억4천만원의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원한 바 있으며, 이번 추가지원은 상반기의 9배에 달하는 물량을 지원한다.

보조금은 보험개발원에서 산정한 차량 기준가액에 따라 총 중량 3.5톤 미

만 차량의 경우엔 최대 165만원, 3.5톤 이상 차량의 경우에는 조기폐차 후 동급 신차를 대체 구매할 경우 최대 3천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동차 또는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덤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등 도로용 3종 건설기계이다.

단, 접수마감일 기준 2년 이상 익산

시에 등록되어 있는 차량으로 최종 소유자의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하며, 정상 운행 불가 판정 또는 저감장치 부착 차량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조기폐차 신청은 오는 19일부터 30일까지 차량등록증과 신분증을 지참해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예술의전당 세미나실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익산=장인천 기자

익산시, 세계적 관광시설 개발사와 손잡아

익산시는 지난 14일 익산시청에서 세계적인 관광시설 개발사인 미국 레거시 엔터테인먼트(Legacy Entertainment)사와 익산시 관광시설 개발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5일 밝혔다.

레거시 엔터테인먼트사는 리조트, 워터파크, 테마파크, 아쿠아리움, 뮤지엄, 공연 쇼, 뮤직페스티벌 등 관광시설 개발 전문회사로 세계 각지에 약 40개 관광시설 프로젝트를 수행했다.

특히 최근에는 국내 대기업과 수도권에 미래 트렌드를 앞서가는 관광시설을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은 업무협약을 통해 옹포관광단지 활성화를 위한 매력적인 관광

시설 제안, 보석관광테마단지의 테마를 살린 체험시설, 지역의 과제인 폐석산 활용방안 등을 대해 협력하기로 했다.

정현을 익산시장은 "세계적 관광시설 개발사와의 협업을 통해 백제왕도 익산의 독창성을 살리면서 국내 최고 수준의 관광시설을 만들어 갈 계획"이라며 "익산을 더욱 알리고 관광객을 유치하는데 시너지가 매우 클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레거시 엔터테인먼트사 테일러 제프(Taylor Jeffs) 사장은 "앞으로 동아시아 지역에서 익산의 지리적 이점과 주변 환경을 접목한 관광시설이 개발된다면 역사문화유적과 함께 관광도시로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익산=장인천 기자



지난 14일 군산 동국사 경내 소녀상 앞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기리기 위한 '군산 평화의 소녀상 문화제'가 열렸다.

군산 평화의 소녀상 문화제 개최

올바른 역사관 정립·인권문화 확산 기여

군산 평화의 소녀상 제막 4주년을 맞아 지난 14일 군산 동국사 경내 소녀상 앞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기리기 위한 '군산 평화의 소녀상 문화제'가 열렸다.

군산 평화의 소녀상 기념사업회가 주최한 이번 행사는 일반 시민, 관광객을 비롯해 평화의 소녀상 건립에 참여했던 기부자 100여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일본 전쟁 희생자에 대한 묵념을 시작으로 헌화, 추념사, 헌시, 시극(시낭송), 태극기 퍼포먼스, 추모곡악공연 순으로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평화의 소녀상 헌화를 통해 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일본 정부의 사과와 태도변화를 촉구하고, 일제 강제징용 대법원 확정 판결을 구실로 경제보복 조치를 취하고 있는

일본 아베정부를 규탄했다. 또한 안중근 의사의 어머니가 감옥에서 죽음을 앞둔 아들에게 보낸 편지를 모티브로 선보인 시낭송은 참석자들에게 가슴을 찡는 아픔과 감동을 전해줬다.

군산 평화의 소녀상 기념사업회는 "과거 군국주의 망령에 매몰돼 전쟁 피해자에 대한 사과와 반성을 외면하는 일본정부의 태도는 반인륜적이며, 평화를 사랑하는 세계인들에게 심각한 위협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행사는 3.1운동 100주년,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기념해 위안부 문제를 비롯한 일본정부의 심각한 역사 왜곡 실태에 대해 항의하고, 시민들의 올바른 역사관 정립과 인권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마련됐다.

/군산=김정훈 기자

전주매일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착한신고

아동학대 신고번호
112

"신고하는 당신이 영웅입니다"

아동학대 범죄를 알거나 의심만 되어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지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전화: 국번없이 112
방문: 관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행동적징후

- 어른과의 접촉회피
-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냄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에 대한 두려움
-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 위험에 대한 지속적 경계